
협회소식 / 90

건축계소식 / 94

현상설계 / 100

해외잡지동향 / 107

전시리뷰 / 113

회원현황 / 11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8

협회소식 KIRA news

98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

내년도 예산 초간축 편성
서울 등 12개 시도건축사회 신입회장 선출,
충북·전북 회장은 유임

〈시·도건축사회 신입회장 명단〉

- 서울 우남용(가나건축사사무소(주))
- 부산 이봉춘((주)비전건축사사무소)
- 광주 안태경((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전 석종구(석종구 건축사사무소 루트)
- 울산 서천수(현대 건축사사무소)
- 경기 손 영(진흥 건축사사무소)
- 강원 박세진(박세진 건축사사무소)
- 충남 김현용(홍성 건축사사무소)
- 전남 최윤호((주)원 건축사사무소)
- 경북 전재기(건축사사무소 서영건축)
- 경남 박형규(마산 건축사사무소)
- 제주 김석윤(건축사사무소 김건축)

- 유임

- 충북 오선교((주)선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북 이상돈(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우리협회 시·도건축사회의 9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건축사회를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각 건축사회별로 개최됐다.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각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11일(수) 15:00 ~
- 장소: 제주하니관광호텔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65명중 42명
- 의결내용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대의원수 변동에 따른 총회참석비 부분을 수정하여 총규모 105,000,000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임원선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부회장 선출방법에 있어 임원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본협회 정관에 의한 선출방법을 택하기로한 원안을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김석윤(신임)
 - 간사: 김운옥, 오용화
 - 감사: 고영중
 - 대의원: 김석윤(임기2년 당연직)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19일(목) 14:00~
- 장소: 현대빌딩 15층 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212명중 109명
- 의결내용
 - 운영재원 기체 추인의 건
 - 세수부족에 따른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23,420,200원을 2년거처 3년상환의 조건으로 본부로부터 기체키로한 원안대로 승인
 - 잡수입에 대한 협회자산화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총규모(370,000,000원)는 변동없이 항목계수를 조정하여 편성한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초간축 예산편성을 위해 기존 계속사업(장학사업)을 폐지하고 또한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 내지는 사업비를 대폭 축소 추진키로 하는 등 99년 총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2.7% 감액한 175,000,000원으로 편성한 원안을 승인

● 임원 개선의 건

- 간사(2인): 회장에 위임
- 감사: 황일권

● 자체대의원 도입에 관한 건

- 협회 정관개정에 따라 대의원선출방법은 회원 3인이상의 서면추천제로, 대의원구성은 선출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 혼합형으로, 정족수는 '정회원수의 1/3이상' 등으로 정한 원안 승인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0일(금) 10:30 ~
- 장소: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630명중 347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당초예산액보다 134,475,000원이 증액된 533,667,735원으로 편성한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건축문화의 해' 와 연계해 시민건축대학, 회원작품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98년도 예산액보다 18%가 감액된 총규모 327,813,000원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
- 임원개선
 - 회장: 이봉춘
 - 간사(5인): 차기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
 - 감사(2인): 조정덕, 박선호
 - 대의원(12인): 차기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강원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0일(금) 10:00~
- 장소: 한솔오코벨리 대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53명중 9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2차 추경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총규모: 434,370,021원)
 - 99년도 운영회비 산출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조정된 과목을 제외한 항목은 99년도 임시총회에서 재협의키로 함 (전년도 예산과 같이 집행후 추후 승인받도록 의결)
 - 정관개정에 따른 총회운영 방안 결의의 건
 - 현행대로 운영키로 결의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박세진(신임)
 - 간사: 이인호(신임)
 - 감사: 박상돈(신임)
 - 대의원: 이국남, 김화영, 김길창(유임), 정성원(신임)

○ 전라남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0일(금) 11:00~
- 장소: 광주 추선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00명중 76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2차 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회비수입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의 30%를 삭감한 총 212,332,710원의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98년도 예산보다 대폭 삭감된 총 100,105,000원의 초긴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회장: 최윤호(신임)
 - 간사: 최재철, 국원식, 이재필, 김용휘
 - 감사: 윤순하, 김호신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3일(월) 13:30 ~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 참석인원: 재적회원 2,714명중 835명
- 의결내용
 - 사무소 조직 및 정원조정(안) 승인의 건
 - 구건축사회 직원조정(안)은 신임회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 조직 및 정원 조정(안)은 원안대로 승인
 -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당초 제1차 경정예산보다 142,628,575원이 증액된 1,102,628,575원의 2차 추경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초긴축 예산편성을 위해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일반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전년도보다 36.9%를 감액한 총규모 1,327,424,265원의 99년도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되 본협회의 재정지원금(공정위과징금)을 추가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
- 대의원 선출 및 보선의 건
 - 대의원 선출의 80%는 구건축사회에서, 20%는 집행부에서 선출키로 함
- 임원선출 및 개선의 건
 - 회장: 우남용(신임)
 - 간사(6인): 신임회장에게 위임
 - 김득수, 김수화, 김영덕, 박영식, 송평문, 조민행 회원 선출
 - 감사: 이영복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4일(화) 10:00 ~
- 장소: 울산건축사회관 5층 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122명중 96명
- 의결내용
 - 98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건축운명을 전제로 당초 세입세출예산보다 18,896,861원을 삭감한 227,783,139원의 9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99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99년도 사업 기본방향을 경기침체로 인한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적극적 경영으로 경영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제 경비위주의 세출예산을 반영해 추진키로 한 사업계획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액 보다 10% 감액된 총규모 222,500,000원으로 편성한 99년도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운영회비 수납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 서천수(신임)
 - 간사 (6인 / 부회장 및 보선 2인 포함): 신·구회장이 협의하여 전형위원을 구성 선출하여 회원에게 서면 통지키로 함.
 - 감사 : 배기업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6일(목) 10:00~
- 장소: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215중 169명
- 의결내용
 - 9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대관청간담회 등 조사연구사업, 일본 후쿠오카건축사회와의 자매결연등 국제사업, 회원연수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6%,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83% 감액된 총 204,951,220원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안태경(신임)
 - 부회장: 진경선
 - 간사: 강남구, 김문영
 - 감사: 문성식
 - 대의원: 안태경, 김상석, 박영희, 윤익상, 이창율, 임재식, 조춘원, 진경선

○ 충청북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6일(목) 10:30 ~
- 장소: 충북건축사회관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67명중 91명
- 의결내용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독립예산 편성 실시에 따른 사업 활성화와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낭비 및 비효율요인의 제거와 사업의 내실화 및 업무능률의 극대화로 예산을 건축운영하는 방향에서 99년도 예산액 총규모를 98년도 예산액보다 100,000,000원이 감소된 252,000,000원으로 편성)
 - 임원개선의 건
 - 회장: 오선교(유임)
 - 부회장: 신영동(신임)
 - 간사: 김석근, 정철영(신임) 오덕균, 양철호(유임)
 - 감사: 김영욱(유임)
 - 대의원: 오수복, 정세영, 성낙영(유임)



○ 경기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7일(금) 10:00 ~
- 장소: 농민회관 2층 대회의장
- 참석인원: 재적회원 792명중 449명
- 의결내용
 - 99년도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 중 운영회비 수입은 20,000,000원 감액하여 전체세입을 650,000,000원으로 조정하며 세출예산의 총액은 650,000,000원으로 하되 세부항목 감액조정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99년도 자체운영회비 징수기준(안) 승인의 건
 - 현행 기준대로 징수키로 함.
 - 건축사회 총회 운영규칙(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회장: 손 영(신임)
 - 간사: 회장에게 위임
 - 감사: 윤영호(신임)
 - 대의원: 회장에게 위임



○ 충청남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7일(금) 10:30~
- 장소: 아산 그랜드파크 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162명중 84명
- 의결내용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경기불황에 따른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실제 경비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98년도 예산액보다 180,820,000원 감액된 321,880,000원으로 편성)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김현용(신임)

- 부회장(1인), 간사(3인), 감사(2인): 회장에게 위임

○ 전라북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7일(금) 10:30 ~
- 장소: 전북건축사회관 대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77명중 95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 승인(회비수입, 수수료, 기타수입, 이월금수입은 원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고 본부재정지원금 28,600,000원을 차입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28,600,000원이 증액된 491,500,000원으로 편성)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 승인(회원복지증진사업과 지도 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사회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며 99년도 수지예산 총규모는 98년도 1차 추경예산액보다 219,000,000원이 감액된 272,300,000원으로 편성)
- 임원 개선
 - 회장: 이상돈(연임)
 - 간사: 최영배, 임종선, 이진희(유임), 최근영(신임)
 - 감사: 최기주(신임)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8일(화) 10:00 ~
- 장소: 신신예식원
- 참석인원: 재적회원 235명중 147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

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며, 초긴축적인 세출예산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98년도 대비 43%가 감액된 198,902,000원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 임원 개선
 - 회장: 석종구
 - 간사: 이기수, 이길주, 류해관, 이상훈
 - 감사: 김영배
- 대의원 선출
 - 대의원(12인): 회장단에 위임

○ 경상북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5일(수) 11:00 ~
- 장소: 경주보문단지내 현대호텔 컨벤션홀
- 참석인원: 재적회원 200명중 166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전재기(신임)
 - 부회장: (미정)
 - 감사: 권오웅
 - 간사: 조국환, 금상순, 서종률
 - 지역건축사회장: 김동수(영주), 이덕기(문경), 박기룡(경산), 성문용(영천)
 - 대의원: 전재기(당연직), 이영기

○ 경상남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6일(목) 10:30 ~
- 장소: 창원호텔 3층 목련홀
- 참석인원: 재적회원 299명중 187명
- 의결내용
- 재정지원금 차입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8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총회성원구성의 건
 - 정기총회는 전회원으로, 임시총회는 대의원제로 시행
- 임원 선거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박형규(신임)
 - 부회장: 노명환
 - 감사: 송종태, 백종현(잔여임기)
 - 간사: 고보석, 안경호(잔여임기), 윤재화, 김상부
 - 지역건축사회장: 손수일(마창), 김종웅(밀양), 배종수(거창)
 - 대의원: 배동권, 최봉형, 오경수, 백종현, 고보석, 허필도(전임회장)
 - 본회 대의원: 지역건축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고한 명단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회장단에 위임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7일(금) 14:00 ~
- 장소: 대구시민회관 2층 소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508명중 32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총규모 619,000,000원)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총규모 357,000,000원)
- 임원개선의 건
 - 회장단에 위임

“제10회 아시아건축사 토론회” 내년 서울 개최

ARCASIA 15개 회원국
1천여 건축사 참여

99년 아시아건축사 토론회(ACA Forum-10)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우리 협회 대표단은 지난달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기간 중 열린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에서 내년 아시아건축사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축사 역할과 국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열릴 내년 토론회에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와 행사관계자, 일반참가자 등 약 1천여명이 참가해 아시아지역 건축사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기술교류 및 건축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약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내년 행사에서는 토론회와 함께 공식행사로 아카시아이사회와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한국현대건축작품전, 산업시찰 및 건축탐방, 리셉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 아시아지역 15개 회원국가의 건축사단체들이 참가해 매년 각국을 돌며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 회의를 갖고 또 격년마다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아카시아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또 이들 행사기간 중에는 아시아 건축상,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아카시아 학생건축상 등 다양한 건축관련 행사가 함께 열린다.

한편 우리 협회는 99년 ‘건축문화의 해’ 지정에 이어 이번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힘써준 우리 건축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란 점에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내년 행사에는 지명도가 높은 외국의 건축사들이 상당수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건축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반대성명 발표

우리 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단체 강제가입 철폐 및 임의설립(안)”에 대해 우리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협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은 지난 11월 6일자 주요일간지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최근 규제개혁위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안이 공익성이 강한 단체들의 대국민서비스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들은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그간 정부가 민간부문에 이양해 온 권한을 다시 환원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작은정부를 지향해온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처사라면서 전문성이 강한 전문자격사는 반드시 구심점이 되는 단체가 제도적으로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자격사단체의 공공성·공익성 상실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임의설립에 의한 단체의 복수설립이 허용될 경우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공정거래 질서의 문란을 불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 내지는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 대표단,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 참가

일본측 건축계 인사와 양국 우호증진 다져

이의구 회장과 김규태 전임회장, 송기준

감사로 구성된 우리협회 대표단이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 초청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대표단은 2박 3일간의 방문기간 동안 일본 나라현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41회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등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측 대표단과 양국 건축사단체간 우호증진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대표단은 한·중·일을 주축으로 결성된 동북아건축교류협회의 회를 통한 건축기술 교류 및 정보자료의 교환 등을 활성화하고 향후 친선도모를 위해 자국에서 개최되는 건축관련 행사에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방문기간중 일본 건축계 인사들과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접촉을 갖기도 했다.



이의구 회장 축사 광경

최승원작 「원실업 천안공장」, “아카시아 건축상” 금상 수상

“학생건축상” 최우수상에는
인하대 강효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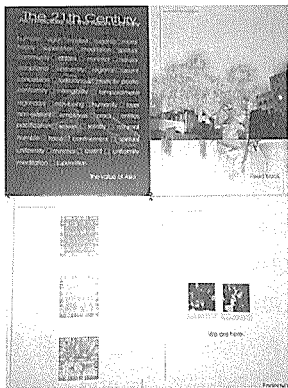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결과 우리협회 최승원(양가주방건축사사무소 대표) 회원이 출품한 ‘원실업천안 공장’이 산업시설부문에서 영예의 골든메달을 수상했다. 또 ‘21세기 아시아의 건축’을 주제로한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에서도 지난 10월 ‘98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작품명 ‘한강사박물관’으로 은상을 수상해 이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강효진(인하

대 건축공학과 3년)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92년에 제정된 아카시아 건축상은 매년 아시아지역 15개 회원국 건축사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ARCASIA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행사기간중에 개최된 단독주거, 공동주거, 공공·공익 빌딩, 상업·사무용 빌딩, 산업시설, 정통보전 건축시설 등 6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또한 강효진씨가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건축상은 제시된 주제에 맞게 각국 학생 대표들이 계획설계작품을 출품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세계건축기행의 특전을 주고 있다.



원실업 천안공장(최승원작)



We are Here(강효진작)

김영수 전임회장,

'98에콰도르 건축비엔날레 참가

건축가 김 원氏,
"서울, 도시와 건축" 주제강연

김영수 전임회장과 건축가 김원(광장건축)씨가 우리협회를 대표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시에서 열린 '98에콰도르 건축비엔날레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에콰도르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국제 건축비엔날레에서 우리 대표단은 "서울,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강연하는 한편 남미 등 각국 대표단과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친선을 다졌다.

「韓·伊 석재건축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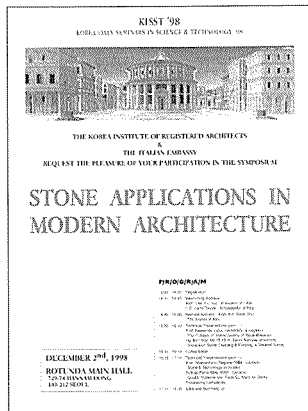
개회

"현대건축에서의 석재 응용" 주제로 연구발표 및 정보교류

한·이탈리아 두나라간 석재건축에 관한 교류증진과 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12월 2일 서울 한남동 로톤다 회의실에서 열렸다.

'현대건축에서의 석재 응용'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축사 김석철(아키반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이태리의 석재(The Stones of Italy)'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Raimondo Ciccu(Cagliari 대 교수), P. Blasi, 김완모 박사(서울대 에너지·자원기술연구소) 등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재건축 연구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이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석재건축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그 활용방법을 제시한 자리로 특히 건축재료에 대한 기술교류를 통해 한·이탈리아 양국의 건축문화 교류 및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호남 건축사, 친선 등반대회 열어

전북·광주·전남·경남 회원 지리산 등반

전북·광주·전남·경남 등 4개 시도건축사회의 건축사 회원들이 지난 11월 11일 지리산 연합 등반대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전북건축사회(회장 이상돈)가 주관한 이번 등반대회에는 30여명의 영·호남지역 건축사 회원들이 참가해 우의와 친목을 다지며 동·서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진우종합건축 김동훈 회원, 경기예술대상 수상

예총 경기도지회가 올해의 건축부문 수상자로 선정



김동훈 회원

김동훈(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회원이 올해의 경기예술대상 건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예술대상은 예총 경기도지회(지회장 송태욱)가 매년 지역 문화계 인사중 건

축·사진·국악·음악·미술·문학·연예·연극·무용 등 9개 부문에 걸쳐 예술발전에 공을 세운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희원은 문학부문의 성지월(시인), 미술부문의 최정길(경인미술대전운영위원장)씨 등과 함께 건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동훈 회원은 그동안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건축계소식 archi-net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총공식 출범

지난 11월 25일 발대식 갖고 향후 사업추진계획 밝혀



현판식 광경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총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낙균 문화부장관과 이광노(서울대 명예교수) 조직위원장, 윤도근(홍익대 건축과 교수) 김영수(본협회 전임회장) 부위원장,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건축관련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상징도안 공모 당선작 시상식, 현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조직위는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건축이 모든 문화생활의 바탕이며 인류 문화유산이 된다는 기본이념 아래 다양한 건축문화활동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문화국가 이미지의 세계화를 창출하기 위한 밀레니엄사업을 비롯해 지역·도시의 정체성 찾기, 건축문화자산의 개발, 건축의 위상정립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된 '건축문화의 해' 상징도안과 표어가 공개됐는데 엠블럼부문에서는 안중돈(건축설계 프리랜서)씨 작품이, 로고부문에서는 최 건·이재은(명지대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응모작이, 표어부문에서는 하세련(주부)씨의 응모작이 부문별 당선작에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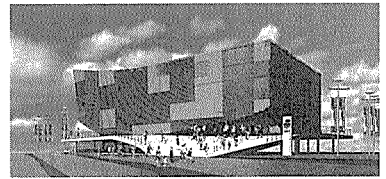
'99건축문화의 해 공식 엠블럼 및 로고

포세이씨 + 케이씨건축,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 당선

연면적 7백 40평 3층 RC조 건축물

2000년 5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릴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에서 POS-A.C(대표 심인보, 이강우)와 케이씨건축(대표 공 철)의 공동설계안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한 이번 현상설계의 당선작은 대지 1천1백여평, 연면적 7백4십평의 지상 3층 규모로 철골과 RC조로 건축될 예정인데 우리의 자연과 공간의 선적 이미지, 보자기 등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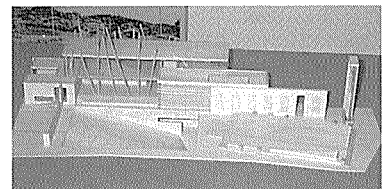
제1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수상자 발표

최우수상에 천병권 김기훈 공동작 '양동 1998'

천병권, 김기훈씨의 공동출품작 '양동 1998' 이 제1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에서 일반공모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하고 울산건축사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이질문명의 만남' 이 주제로 제시된 가운데 총 60점의 작품이 응모, 이중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2점, 가작 2점 등 총 42작품이 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전민영씨의 '고요' 와 이호수 하화진(동아대 4년)씨의 'Cross of Faith' 등 2점이 차지했으며 가작은 박상준 김성남(대전대 3년)씨의 'In and Out' 이, 입선에는 구재형씨의 '양동 열린교회' 등 37점이 선정됐다.

한편 이들 일반공모전부문 수상작들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건축가 유진두(부명건축), 김기원(예원건축)씨 등 17인의 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됐다.



양동 1998 (김기훈, 천병권작)